

### 불교계 시민사회활동 '파란불'

조계종, 단체 지원 위한 진흥법 제정... 각종 포상 규정도

조계종이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 시민사회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그동안 예산확보 등 체계화되지 않았던 불교시민사회활동 등을 법제화시키고 종단이 인정한 시민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관리 후 지원할 것으로 보여 불교시민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불교사회활동의 범위와 지원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가 마련한 진흥법안을 살펴보면 '불교시민사회활동'을 종단 및 종교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 노동, 여성, 통일, 재해구조 등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의 사회활동이라고 범위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총무원은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람은 행정 및 재정 지원 요청시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료나 싼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중앙총무원 예산 외에도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긴급구조가 필요한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사회활동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한편 사회부는 오는 3월 14일 종단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 한 뒤 6월 임시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정책·각종제도 개선 위한 연구소 설립

실천불교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추진 등 사업 계획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효립)는 3월 8일 성남 북곡사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책연구기관인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설립이다. 이 연구소는 법안 스님이 소장을 맡고 법조인, 경영인, 정부부처 경험자 등 재가불자 전문위원 10인 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정책 핵심 의제 개발 △종현종법 개정안 마련 △종무행정 체계 연구 △중앙총회 및 종정기구 기능 역할 연구 △종단 및 사찰 재정 확충에 대한 비전 제시 △불교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스님 노후복지 대책 방안 연구 △종단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등 정책 및

불교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연구소에서는 체계적인 연구 기능을 도입해 중단기적인 정책 과제를 생산하고 종현종법 등 종단 내외의 법률 체계 정비와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월 1~2회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며 비판과 견제 중심의 정책 연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캄보디아 지원사업,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업 불교추진위 구성, 2007 불교평화생명포럼 개최 등이 논의됐다.

김주일 기자

### 불교환경연대·조계사 음식물쓰레기 '0' 도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개발 및 상호협력력을 위해 조계사와 '빈그릇 운동 협약 체결식'을 3월 20일 오전 11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갖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음식물을 남김없이 먹자'는 취지의 빈

그릇 운동을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계사에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지원을 하게 되고 조계사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각종 홍보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계사는 신도 20~30인 규모로 '환경실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 '수행'과 '복지'는 같은 말!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시설종사자·봉사자 대상 간화선 교육 '효과'

수행과 복지. 자칫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두 분야가 만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용권)는 불교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월 6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6일 오후 7시,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복지재단 법당을 찾은 실천가들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종교선관장과 옥수언꽃어린이집 정명자 원장,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이봉해 관장 등 40여 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직할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그리고 조계종직할 자원봉사단 회원들이었다.

간단한 입재식 후 무각 스님의 참선 지도가 이어졌다. 무각 스님은 "12주간의 교육 후 봉사와 자기수행이 괴리 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속에서 자기를 확연히 바로 보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행의 회향처는 늘 보살



불교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

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10여분 남짓 진행된 무각 스님의 참선법 설명에도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힘들어 한다.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재숙(30) 팀장은 "전에는 무교였는데 불교계 복지시설에 일하다보니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수행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됐다"며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고령 참가자

인 봉화회 정옥진(75) 회장은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12주간 매주 2시간씩 참선과 수행일기 쓰기를 하며 간화선에 한 걸음 다가갈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한편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불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MBC, 마감뉴스서 사과 방송

월정사 보도관련, 언론조정제 합의

'월정사와 도피안사 등의 사찰이 문화재 보수지원을 유혹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낸 MBC가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정정보도하기로 했다.

2월 28일 월정사측으로부터 언론 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 8일 조정심의를 열고 'MBC는 3월 16일 이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뉴스진행자가 정정보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월정사'

각종구속적담은 안전성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서법당 기와 보수는 스님 개인 속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화재 보수지원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불교계의 첫 공식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은 뉴스데스크 대신 뉴스24에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 동국대 일산병원장 이명목 교수 취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에 이명목 심장 혈관 내과 교수(사진)가 3월 5일자로 임명됐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6일 "이명목 교수가 제 2대 동국대 일산병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2년간 동국대의료사업부문을 이끌어온 이석현 원장은 의료정책전문가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목 신임 일산불교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의대 교수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 윤효정양 첫 수혜 금강대 해외학비 지원

천 태종 립 금강대가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한 '우수졸업자 해외 대학원 학비지원' 제도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금강대 1회 졸업생으로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에 진학한 윤효정양(사진).



윤 양은 3월 6일 금강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양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 연간 약 2천만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김원우 기자

### 도서 증언집회 개최

나눔의집 강일출 할머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는 없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거주하는 강일출(80) 할머니가 3월 8~11일 일본 홋카이도 증언집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15일 김근자(81)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참가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증언집회 참가다.

세계여성들의 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 집회실행위원회와 오비히로 노동연합의 초청으로 일본에 간 강 할머니는 8일 아사히가와 시민문화회관에서 첫 증언집회를 시작으로, 10일 오비히로 도카리플라자, 11일 쿠시로 인권센터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증언했다.

여수령 기자

### 국회 정각선원 신중탱화 점안 '성로'

국회 정각회(회장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허태수,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사관은 3월 5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신중탱화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영주 부처사 조실 근일 스님과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불교방송 송승기 사장, 이계진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 신입생 모집

미래불교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교하자.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묵)가 운영하는 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1호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가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날 신중탱화 봉안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이해봉 회장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신중탱화 조성 봉안으로 국운이 융창하고 국민 모두의 지혜가 증장돼 마침내 성불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집대상은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지도교사이며, 모집기간은 3월 20일 까지. 교육기간은 1년 과정이며, 교육비는 65만원.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생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하는 불교어린이지도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어린이법회 유급 지도교사로서 임선해준다. (02)739-4967 김원우 기자

### '종교비자' 아세요?

"종교단체·직업종교인 위한 것"

### 美 대사관 설명회

미국대사관 영사과는 3월 5일 조계종 총무원 내 국제회의장에서 '종교비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특강에 나선 베드팩스 영사는 "종교비자(R비자)는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직업종교인을 위한 비자를 의미한다"며 "자격은 면세기관과 관련된 합법적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교단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드팩스 영사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국적인 최소 2년간 동종 교단에 소속돼야 하며 교단의 요청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규정한 전통적 종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종교비자를 가진 성직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며 "종교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2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성명서

냉정한 국제자본주의 회색양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불교인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대 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불교는 부처님의 진리야래 민족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 해 왔으며, 민초들의 애환을 위로하며 중생들의 맑은 마음을 위하고, 재계 불자들의 수양을 위한 지표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최근, 황 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식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1년을 되돌아보면, 미래 생명공학의 선점을 위해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황 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교TV(BTN 특별기획)는 작년에 2 차례에 걸쳐 황 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리 사회적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였다.

불교TV는 "미국 세튼의 음모와 NT-1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BTN 특집프로그램 방영을 하였으며, 방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 우석 박사의 논문이 오류가 있다고 하지만, 교신저자인 미국 세튼이 황 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를 도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NT-1이 처녀생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과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불교TV라는 공신력으로 전 국민들이 황 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 하였으며, 줄기세포 특허기술의 진위공방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한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하는 의지나 진정성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황 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가 조금 앞섰다고 해도 과학적 인프라와 자본력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조만간 원천기술을 강대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제 줄기세포 허브를 구성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와 경험이 한국에 집결되도록 노력하였고, 그것을 통해서만 줄기세포에 관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명공학을 선도하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과학자이자 애국자였다.

황 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기술 특허료는 시장이 들어서면,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보고한 바대로, 향후 연간 360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기술주권이며 엄청난 국익창출의 원천이다.

황 우석 박사는 논문상에 데이터 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인 배반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동물 복제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이다.

황 우석박사는 정부와 국민에게 '한시적 연구재연' 기회만이라도 주어진다면, 6개월 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 성과물에 오류가 발생 했을 때는 국제관례대로 해당 과학자에게 1년의 재연기간을 주는 것이 통례이며,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재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황 우석박사에게 연구재연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줄기세포의 재연실험은 줄기세포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며, 대한민국이 미래생명공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원천특허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다.

미래 생명공학의 첨단기술인 줄기세포 기술은 선진국에서 국운을 걸고 연구하고 있으며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진행 시키고 있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세계줄기세포 연구의 중추국을 차지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만 생명윤리법에 가로 막혀 사실상 연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송고한 연구이자,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자비사상을 실현시키는 학문적 과학적 실천 행위인 것이다.

2005년 공동논문 저자이자, 아메리카 연방보건의료의 자문위원인 세튼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뿐 아니라, 황 우석 박사의 원천기술과 특허출원 내용을 도용하여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직도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기득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득권은 미국세력에게 장악 당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국난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은 황 우석 박사의 특허와 원천기술을 지키려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우리 불교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구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의 주장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정부와 대한민국 과학계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 결 의 문 -

- 황 우석 박사의 논문이 나타난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는 황 우석박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재연을 빠른 시일내에 승인해 주어야한다
- 서울대조사위원의 'NT-1 처녀생식' 발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내외 중립적 관련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모두 실질적인 연구에 장애물이 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배아연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생명위원회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면 재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 76.8%가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황 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인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촉구하는 대 국민 성명서 참여 종회의원 명단

돈관	선광	무자
진화	의연	덕문
각원	상운	혜오
법광	노현	자현
지현	원담	정범
장적	장운	수현
도문	일법	윤달
계호	경륜	혜원
일초	성정	일운

※ 중회 의원님들 모두 다 찾아 봐야 했으나, 사정상 미처 찾아볼지 못해 서명에 동참을 하지 못하신 종회의원님 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회의원